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0, Vol. 9, 3-4

Editorial Comment : 정년퇴직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이분된다. 하나는 생의 후반기에 이르면 누구나 사회적 참여를 중단하고 여생을 정리하면서 관조한다는 유리설(disengagement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후반기에도 활동을 계속한다는 이론(activity theory)이다. Cumming과 Henry는 1960년대 초반 미국 캔자스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리설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사회와 격리된 노후생활이 바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후속적으로 전개된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에서는 유리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Huyck & Hoyer, 1982).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화에 해당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노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도록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여겼지만, 노부모에게 “힘드시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라는 권유는 불효에 해당된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의 맥락에서 해석된다. 퇴직과 더불어 좀더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리
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퇴직 그 자체가 경제적 여유 및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연결되므로 퇴직자는 심리적인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다. 또 퇴직자는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활동 능력이 부족하기에 자신
이 그 직장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사실
상 단순한 노동을 제외하면 대다수 직종에서 50세가 아니라 60세가
넘어서 전문가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우리 문화권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
원의 구조조정 작업이 전개되었고, 그에 대한 여파로 교육공무원법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다. 미국
은 항공기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퇴직연령의 개념이 사라졌
다 (Kimmel,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미국인들은 63세를 전
후로 퇴직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기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혜
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권에도 노후를 위한 사
회보장제도가 믿을만하다면 정년제도를 변경시켜도 고통이나 갈등을
맞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래 불어닥친 조기정년퇴직은 쉽
사리 풀 수 없는 노인문제를 증폭시키는 꼴이다.

참 고 문 헌

- 윤가현 (1993). 노년학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동향. *한국노년학연구*, 2,
65-69.
- Huyck, M., & Hoyer, W. (198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ers.
- Kimmel, D. (1995). Growing older in the US. *한국노년학연구*, 4,
103-112.